

제5회 유심작품상 수상자 발표

시 서정춘·이경 시조 이근배, 평론 이상옥



정완영 서정춘 이경 이근배 이상옥

▲시부문-서정춘, 이경

서정춘-삶·죽음경계 포착 이경-일상생활 평이하게

1968년 신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서정춘 시인. 서정시의 본령을 지키려는 남다른 시적 열결성은 그로 하여금 등단 30년이 가까운 1996년에서야 첫 시집 <죽음>을 간행하게 만들었다. 이번 수상작으로 결정된 '혼불 1' (혼자와 비평, 2006가을)은 생명의 불인 혼불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사라지는 순간을 포착한 것. 그는 혼불을 '떠돌이로 달아나는 / 너, 마지막 처음인 / 연금술사' 라고 묘사하고 있다. 떠도는 혼불을 마지막이자 처음인 연금술로 파악한 것도 흥미로운 발상이지만 최소 언어로 최대 효과를 발휘하는 시적 운용은 무절제한 말의 홍수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시적 성취라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이구동성이다.

시 부문 공동수상자 이경은 1993년 <시와 시화>으로 등단한 이래 <소와 뻐꾹새 소리와 언저발가락><흰 소, 고삐를 놓아라> 등의 시집서 독자적인 개성과 시적 능력을 보여 준 바 있다. 그의 시는 한국현대 서정시의 큰 산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서정주의 전통적이며 사마니즘적인 시적 열정을 이어 받은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수상작인 '뜨거운 하늘' (시와 시화, 2006년 가을)은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시장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봉천동 밥집 아주머니를 소재로 하여 '밥이 하늘'이라는 삶의 근원적인 명제를 평이하고 간결하게 표현했다.

밥을 하늘처럼 알고 밥을 팔기 위해 열심히 시장거리를 뛰어다니는 밥집 아주머니, 봉천동 오거리 밥집에 모여드는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화자의 관찰이나 묘사는 예사롭지 않다. 이는 평가다.

특별상에 정완영 원로시인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주관하는 제5회 유심작품상 시 부문에 서정춘씨의 '혼불 1'과 이경씨의 '뜨거운 하늘'이 선정됐다. 또한 시조 부문에는 이근배씨의 '간찰'이, 평론 부문에는 이상옥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특별상에는 원로시인 정완영씨가 받게됐다. 정 시인은 88세의 노의 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시조전집 완간을 통해 우리 민족의 삶과 숨결을 민족사의 원형인 시조로 형상화 함으로써 시조의 현대화에 큰 공적을 쌓아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다는게 심사위원단의 선정 이유다. 이외에도 신인문학상에는 시 부문에 배재형씨가, 시조 부문에는 김해진씨가 당선됐다. 또한 유심시조백일장에서 정영애 김재순, 차상에 문부자, 차하에 강현남씨가 각각 뽑혔다.

▲시조부문-이근배

이근배-간결한 시행 돋보여

시조 부문 수상작은 이근배 시인의 '간찰' (현대시화, 2006. 12)이다. 이 작품은 2002년 불교문학상 수상작 '절필'에 이어 40년이 넘는 그의 시력에 하나의 획을 긋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근배 시인은 1961년 서울신문, 경향신문, 조선일보 등의 신춘문예에 동시에 당선돼 화려하게 등단한 이후 활발한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우리문단의 대표적인 중진 시조시인이다. '간찰'은 이러한 기대가 구체적으로 실증된 작품으로 영원히 먹 냄새 마르지 않는 시를 쓰고 싶은 소망을 '묵습의 불타갈은 것 / 한 자라도 적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여백을 살릴 줄 아는 행간의 여유와 간결한 시행의 운용은 이근배 시인 특유의 역량

발휘이자 시적 성취라는 점에서 그의 이번 수상은 이 상의 권위를 한 단계 격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심사위원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평론부문-이상옥

이상옥-지역 문학 평등실현

문학상에 있어서도 내로라하는 주요 문학상은 대부분 서울 중심 문인들에게 시상되는 것이 한국문단계의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올해 유심작품상 평론부문은 지역문학 진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남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옥 평론가를 선정했다고 심사위원단은 밝혔다.

이상옥 평론가는 1989년 시인으로 등단했다. 그러나 그간 비평집 <반방의 시화> <여류하는 시화> <아름다운 상처의 시화> <시적 담화체계 연구> 등 여러 권의 비평집을 간행하며 의욕적으로 비평활동을 전개해 왔다. 비평세계에 있어 다소의 명암굴곡이 있고 논리체계나 깊이 문제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지역문학을 지키면서 소외된 지역문학의 중심부화를 통해 이 땅의 문화적 평등실현을 위해 진력해 온 노력은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심사위원들은 입을 모은다.

■유심문학상은

1918년 9월 만해 한용운 스님이 창간한 불교지 <유심>은 같은 해 12월 통권 3호로 중단됐다가 81년만인 2001년 만해사상실천선양회와 낙산사 회주 오현 스님, 신경림 시인 등의 후원으로 복간이 추진돼 3월 1일 통권 4호를 발행했다.

<유심>은 한국문학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유심신인문학상은 2002년부터, 유심작품상은 2003년부터, 시조백일장은 지난해부터 신설해 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매년 8월 만해추천기간에 백담사 만해마루에서 거행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초기작 전시·회고록 출간 등 다채

29일 故 백남준 타계 1주년 맞아 화랑가 '슬럼'

29일 고(故) 백남준(사진) 타계 1주기를 맞아 백남준을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고 있다. 백남준의 대표작 '다다의선'이 설치돼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3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일렉트로닉 오페라' '참여텔레비전' 등 백남준의 초기 작품을 보여주는 전시가 열린다. 이들 행사에 맞춰 백씨의 부인 구보라 시게코 여사는 27일 입국, 다음날인 28일에는 백남준씨의 유분이 모셔져있는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를 찾았다.

민간 전시공간의 전시도 29일부터 일제히 개막됐다. 서초구 잠원동의 필립 강 갤러리(02-517-9092)는 백남준의 활동을 많이 촬영해온 사진작가 이은주(60) 씨의 사진을 모아 29일부터 한 달간 '아 백남준' 전시를 시작한다. 백남준의 방한 때 활동과 뉴욕 소호의 작업실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로 처음 공개되는 것들이 많다.

'백남준과 플럭서스 친구들' 전시를 29일 개막한 종로구 관훈동 갤러리 썬지(02-736-0088)에서는 마당에 백남준을 기리는 젊은 작가 이지영 씨의 한복 설치작품을 전시해 놓았다.

갤러리 썬지는 백남준이 74세로 사망할 때까지 활동상을 기록한 사진, 관련 텍스트와 영상 등을 통해 되짚어보고 그의 실험예술의 토대가 됐던 1960년대 전위운동인 플럭서스를 함께 조명할 계획이다. 전시는 3월 18일까지 계속되며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



한편 생전의 백남준과 가까웠던 문화예술인 52명이 고인의 추위를 회고하면서 쓴 글 모음 <TV 부처 白南準(삼과삼)>도 29일 출간됐다. 이외에도 해외 특별 추모 전시로는 한국이 주변국인 스페인 마드리드 아르코 아토페아 특별전 '환상적이고 하이퍼리얼한 백남준의 한국비전' (2월 13-5월20일)이 주목된다. <백남준> 등 국내 곳곳의 백남준 소장품 80여점이 유럽관객과 만난다.

김주일 기자

한중수교 15주년 기념 도자展

한중수교 15주년을 기념하는 '한중국제도자교류전'이 2월 7-14일 대구 대백플라자갤러리에서 열린다. 한중도자문화교류추진위원회(위원장 박현·한국학연구원)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한국 전통도자예술전'과 '중국 당대 자사차오 작품전'으로 이뤄진다.

한국 전통도자예술전에는 문경 황담요 김억주 대표(상주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중국 자사차오 작품전에는 서한당·담첨태 등 자사차오 작가 80명이 참여한다. 장작가마로 구워낸 김억주 대표의 작품 200점과 중국 자사차오 작가들의 작품 200여 점이 선보인다. 전시 기간 동안 도자기 제작 시연과 자사차오 감법법 강연, 포차시연회, <차와 삶>(도서출판 바나나) 출판기념회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박현 위원장은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중국 도자 관련 행진협회가 추천하고, 이천시 인민정부가 인증한 예술인들"이라며 "6년간 개최해 온 한중국제도자교류전이 한중간 우호와 교류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중도자문화교류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경, 중국에서 '한국 도자예인 초청전'을 개최할 예정이다.(02)3673-5634

여수령기자

명인명무전-김지원씨 공연

김지원(한양대 교수)씨의 '한국의 명인명무전-전통춤 공연'이 1월 31일 서대문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오후 7시에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 김 교수는 쌍검무와 입춤, 장고춤, 소고춤 등을 선보인다. 특히 쌍검무는 최승희 선생이 추웠던 것을 재구성한 작품. 김씨는 이날 공연에서 선이 끊고 힘찬 춤사위를 선보일 예정이다. (02)2278-5452

김주일 기자

보이차 전문점

진보이차·진보이차·철관음·우롱차

대홍포·화차·인삼우롱차·40여가지의 차

瑞榮普洱

조계사 건넌방 TEL. 02)722-0855 H.P. 017-411-0882

DVSS 부처님의 소중한 사찰과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CCTV, DVR 설치 및 판매 전문

DVR+모니터+(주·야간)적외선카메라 4대 = 250만원, 카메라 1대 추가시 +25만원

작동점검, 케이블보수, 기기청소 등 A/S 및 정기점검 서비스

3대 만족 품질, 가격, 서비스

사업내용 : CCTV판매 및 설치 공사

"보안은 예방"

현대불교신문사 대전·충북지사 지사장 헤철 합장

현도시스템 전화 043)732-5560/011-9422-8453

2006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법문세트

(오디오테이프 8개 1세트) 24,000원(무료배송)

인간 분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

부처님의 생애(팔상성도)를 중심으로 구성, 각 생애에서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최고의 법보시

인간 분다

우리가 인간 부처님의 삶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의 위대함을 찬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지표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이상적 모델로서 부처님의 삶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법문내용

- I (도솔대의상) 종편 스님(중앙승가대 총장)
- II (비랑강생상) 원운 스님(동국영원장)
- III (사문유관상) 지진 스님(백양사 유사)
- IV (유성출가상) 지광 스님(승인선원 원장)
- V (철산수도상) 수전 스님(해인선사 주지)
- VI (수학왕상) 풍광 스님(영계사 강원장주)
- VII (늑원전법상) 정림 스님(강남포교원 원장)
- VIII (영림열반상) 원담 스님(조계사 주지)

이 법문은 광주불교사원연합회와 현대불교신문사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인간분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의 여덟분의 법주(종편 원운 지진 지광 수전 풍광 정림 원담) 스님들이 2006년 10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광주 동구 K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5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